

쪽 천마산(天磨山)에 있다. 세속 사람이 이 고개에 올라 동쪽으로 금강산을 바라보면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47, 江原道, 淮陽》斷髮嶺, 在天磨山, 距淮陽府一百五十四里. 諺云, 俗人登此嶺, 見金剛山者, 思欲斷髮出世故名.

【斷法 단법】 죄인을 법에 따라 처단함. 《義禁府謄錄, 肅宗乙卯3月14日》傳曰, 福昌君楨等, 俱以骨肉之親, 雖有罪犯, 按法處之, 予不忍爲之. 且慈聖之教, 亦不忍斷法, 並特爲減死定配.

【斷付 단부】 “斷戶付籍”의 준말. 《增補文獻備考 87, 禮考, 私喪禮》仁宗十四年, 制, 同宗支子及遺棄小兒三歲前, 斷付收養者, 爲收養父母并服三年喪, 遺棄小兒仍繼其姓, 同宗支子爲親父母期年. 異姓族人之子收養者, 服喪之制, 禮雖無據, 恩義俱重, 不可無服, 其令服大功九月, 四十九日.

【斷不饒貸 단불요대】 단연코 용서하지 아니함. 《新補受教輯錄, 禮典, 惠恤》今番段, 嚴立科條, 或有犯禁人, 入啓論罪, 斷不饒貸. 《松南雜識(林氏本), 李, 方言類, 近取篇》斷不饒貸.

【斷事官 단사관】 고려 말기,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에 두었던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정3품 이하 5품 이상의 관원으로 임명하였다. 《高麗史 77, 百官志, 諸司都監各色》三軍都摠制府, 恭讓王三年, 省前軍·後軍, 只置中軍·左軍·右軍, 爲三軍都摠制府, 統中外軍事……副摠制使各一人, 通憲以上, 斷事官二人, 正順以下五品以上, 經歷一人, 四·五品.

【斷石山 단석산】 산 이름.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건천읍(乾川邑) 방내리(芳內里)와 내남면(內南面) 비지리(飛只里)와의 경계에 있다. 신라시대 김유신(金庾信) 장군이 신검(神劍)을 얻어 가지고 단석산 석굴 속에 들어가서 검술을 수련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月生山. 《新增東國輿地勝覽 21, 慶尙道, 慶州》

【斷俗寺 단속사】 절 이름.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 단성면(丹城面) 지리산 동쪽에 있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7년(748)에 대내마(大奈麻) 이순(李純)이 창건하였다고 하며, 혹은 경덕왕 22년에 신충(信忠)이 창건하였다고도 한다. 입구에 최치원(崔致遠)이 쓴 “廣濟岳門”이란 네 글자의 각석(刻石)이 있었다. 《三國史記 9, 新羅景德王本紀》二十二年八月, 桃李再花, 上大等信忠·侍中金邕免. 大奈麻李純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累徵不就,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居之. 《三國遺事 5, 避隱, 信忠掛冠》天寶七年, 年登五十矣, 改創槽淵小寺爲刹, 名斷俗寺.

【斷訟都監 단송도감】 조선 성종(成宗) 12년(1481)에 노비의 송사를 판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 관아. 《朝鮮成宗實錄 125, 12年正月己卯》仍命政院, 書局名以啓. 政院書辨定都監·辨決都監·聽理都監以啓. 御書斷訟都監. 《朝鮮成宗實錄 125, 12年正月乙未》傳旨斷訟都監曰, 今觀都監聽訟之勢, 似欲爭先速決, 然凡決事, 寧爲拙遲而得情, 不宜務速而失實. 矧伊定限在於今年之內, 不必率爾爲之也, 當徐徐聽理, 期於平允, 使訟者得以自伸, 而無抱屈之嘆.

【斷獄三據 단옥삼거】 범죄 사건을 처결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건. 곧 초사·증거·증인을 이른다. 《欽欽新書 10, 剪跋蕪詞 2, 北部咸奉連獄事詳覈回啓》原夫斷獄之法, 厥有三據, 一曰苦招, 二曰帳驗, 三曰公證. 三者相合, 其獄無疑, 三者相違, 其獄未究.

【斷獄三蔽 단옥삼폐】 범죄 사건을 처결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되는 세 가지 편견. 곧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건은 며느리를 두둔하게 되고,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의 사건은 전실 자식을 두둔하게 되고, 첩과 적처 사이의 사건은 적처를 두둔하게 되는 편견을 이른다. 《欽欽新書 9, 稀異之案 2, 開城府賤妾福德詛其嫡埋凶》臣謹案, 決訟斷獄, 原有三蔽, 姑與婦相戾, 官必疑姑而怨婦, 繼母與前子相戾, 官必嫉母而憐子, 妾與嫡相戾, 官必構妾而伸嫡. 夫獄者, 天下之平也, 平者衡平也, 先有一秤設于乃心, 其可以得平乎.

【斷障微少 단장미소】 고려시대, 균여(均如) 이전에 화엄교학(華嚴敎學)을 강설(講說)하는 데 쓰던 의기(義記) 중의 하나. 《均如傳 4, 立義定宗分》又華嚴敎中有先公鈔三十餘義記, 其名曰, 三敎所爲同體·空有·盡不盡·權實·華藏說·成土海·明難·歎不歎·三生攝體·授職·六相·就實本實·斷障微少·兜率天子五種成佛·解行佛分相·流目廻心·六地·八會·百六城·淨土·菩提樹·性起·五果·四句·廣修供養, 主伴章等也.

【斷瘡 단창】 학질도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위세가 대단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星湖僊說 8, 人事門, 庶孽防限》桓石虔, 司空豁之賤孽, 而威名振動, 至於斷瘡.

【斷戶付籍 단호부적】 생가의 호적을 끊고 양가에 입적함. 斷付. 《增補文獻備考 86, 禮考, 立後》高麗文宗二十二年, 制, 凡人無後者, 無兄弟之子, 則收他人三歲前棄兒, 養以爲子, 即從其姓斷戶付籍, 已有成法. 其有子孫及兄弟之子, 而收養異姓者一禁.

【斷紅 단홍】 화려한 단장. 《三國遺事 3, 塔像,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遍於閭閻間, 物色求之, 有一小郎子, 斷紅齊具, 眉彩秀麗.

方 部

°方 모방

【方可謂之 방가워지】 진실로 그렇다고 이를 만함. 《童蒙先習》父慈子孝, 君義臣忠, 夫和婦順, 兄友弟恭, 朋友輔仁, 然後方可謂之人矣.

【方蓋 방개】 네모 반듯한 덮개. 《樂學軌範 6, 雅部樂器圖說, 建鼓》其制, 高六尺六寸, 中植以柱, 設重斗方蓋, 蒙以珠網, 張以絳紫繡羅.

【方曲 방곡】 네모가 지게 만든 누룩. “曲”은 “麴”의 약자이다. 《度支準折, 熟造作末》方曲一罇介(小麥六升五合, 重三斤), 價錢二錢半.

【方冠 방관】 평상시에 사대부가 쓰는 관의 한 가지. 《京都雜志, 風俗, 巾服》士夫平居, 多戴幅巾·方冠·程子冠·東坡冠·朝士唐巾, 街上俱用笠子, 穿唐鞋雲鞋.

【方金牙 방금아】 적동(赤銅)의 한 가지. 《物名考 5, 不動